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5호

I

‘뿌리채소·열매채소’ 한 배로 수출하는 기술 확립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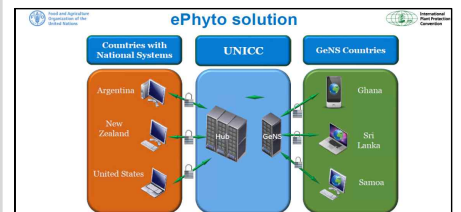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 한국산 버섯 구매 경험



III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상용화 개시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5호 2022. 2. 28(월)

‘22.2.28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18.6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6.6% 224.4백만불	  16.6% 1,139.2백만불	  52.7% 496.1백만불
+ 유자, 배, 고추 - 김치, 인삼류, 딸기, 파프리카	+ 면류, 과자류, 음료, 소스류 - 인스턴트면, 생우유, 두부	+ 김, 참치, 명태, 고등어, 대구, 연어 - 미역, 전갱이, 어란, 톳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296.5백만불(23.4% ↑)	K-Food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나, 지속되는 물류난으로 수출 증가폭 둔화	 배(111.1%), 유자(29.1%) 라면(24.6%), 음료(34.0%)  김치(△2.9%), 인삼류(△2.7%) 참치(△15.6%),
  중국 300.7백만불(29.0% ↑)	해외생산기업 등록 지연 등으로 감소세 지속되나 인삼, 유자 등 신선식품 회복세	 명태(17,136.0%), 유자(41.0%), 음료(14.4%)  인삼류(△48.8%), 라면(△6.4%)
  신남방 (ASEAN + 인도) 403.1백만불(14.0% ↑)	베트남 통관 정상화로 증가세로 전환, 가공식품은 음료, 라면 등 고른 증가세 유지	 참치(2.2%), 음료(9.0%) 라면(30.5%), 포도(5.1%)  딸기(4.3%), 인삼류(9.3%)
  일본 280.1백만불(3.2% ↑)	소비침체 및 연초류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식초, 소스류 등 가공식품 소비 증가세	 식초(123.0%), 인삼류(34.0%) 소스류(38.8%)  김치(△39.5%), 라면(△3.5%) 참치(△15.3%),
  EU + 영국 142.2백만불(68.4% ↑)	라면 감소 지속되고 있으나, 봉쇄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음료, 김치, 과실류 등 호조	 음료(65.2%), 김치(30.4%) 과실류(83.7%)  라면(△12.3%), 대구(△44.9%)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5호 2022. 2. 28(월)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2.28

□ 인삼

- (중국 6.8, Δ 48.8) 가공식품 생산기업 등록 진행 및 춘제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회복세
- (베트남 4.9, 12.3 \uparrow) 통관 정상화 및 연말 재고소진으로 빠른 회복세
- (일본 4.6, 34.0 \uparrow) 인삼음료 재고소진에 따른 발주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수요지속

28.8백만불(Δ 19.7%)

주요 수출국 : 중국(6.8백만불, Δ 48.8%), 베트남(4.9, 12.3%), 일본(4.6, 34.0%),
미국(3.9, Δ 2.7%), 홍콩(2.8, Δ 9.6%), 대만(2.7, Δ 22.8%)

□ 김치

- (일본 80.1, Δ 12.7) 제작년 배추파동으로 연초 물량이 몰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지속
- (미국 28.3, Δ 22.5)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실적 감소

26.0백만불(Δ 19.8%)

주요 수출국 : 일본(11.1, Δ 39.5%), 미국(5.4, Δ 2.9%), 네덜란드(1.3, 20.6%),
영국(1.3, 48.2%), 홍콩(1.2, Δ 14.8%), 대만(0.9, 10.8%)

□ 음료

- (미국 15.9, 34.0 \uparrow) 기존 히스패닉, 아시안계 매장에서 판매되던 알로에 음료가 월마트 온라인 등 현지 백인계 마켓으로 판매 확대. 또한 밀키스, 유자주스 등 인기
- (중국 13.8, 14.4 \uparrow) 중국 내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에 따라 식물성 음료 및 기능성 음료 소비 증대
- (인니 3.4, 26.8 \uparrow) 오라떼 편의점 입점, 기름진 현지 식문화와 궁합이 잘 맞는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밀키스 등), BTS 커피음료 등의 소비 증가

78.8백만불(15.8%)

주요 수출국 : 미국(15.9, 34.0%), 중국(13.8, 14.4%), 캄보디아(13.6, Δ 3.8%),
베트남(5.1, 14.2%), 인니(3.4, 26.8%), 일본(2.9, 31.7%)

□ 참치

- (일본 21.4, Δ 15.3) 코로나19 및 해외선단 가동 감소로 일본 도요스시장 '21년 눈다랑어 상장 20% 감소
- (프랑스 16.3, 185.6 \uparrow) 외식수요 증가로 스테이크로 소비되는 로인(Loin) 및 냉동 필렛 수요 증대
- (베트남 11.6, 16.2 \uparrow) 수산물 통조림 수요 증가로 핵심시장으로 부상

85.1백만불(4.3%)

주요 수출국 : 일본(21.4, Δ 15.3%), 프랑스(16.3, 185.6%), 베트남(11.6, 16.2%),
태국(7.6, Δ 31.1%), 중국(5.6, 143.4%), 필리핀(5.0, 101.0%)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뿌리채소·열매채소’ 한 배로 수출하는 기술 확립

- 고구마·파프리카 혼합 수출...케이(K) 농산물 경쟁력 향상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확 후 저장 온도가 다른 고구마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한 배로 수출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 가지 농산물을 혼합해 수출한 사례가 있지만, 적절한 수확 후 관리 기술이나 수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쉽게 부패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수확 후 처리방법을 달리한 고구마, 파프리카, 토마토 3품목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온도 9도(°C), 환기구는 3분의 2 열어두는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 수출했다. 혼합선적한 지 15일이 지나 현지에 도착한 고구마, 파프리카, 토마토 품질이 매우 좋았고, 현지 구매상(바이어)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 확립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응해 여러 농산물을 배로 한꺼번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적용한 고구마(뿌리채소), 파프리카, 토마토(열매채소)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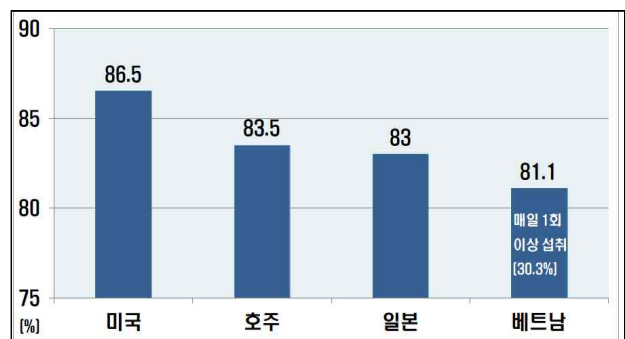
- 4개국 1,600명 조사...맛·품질 위주로 선택, 서양권 흰색 선호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우리 버섯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에 알맞은 품종을 육성하고자 주요 수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섯 선호도를 분석했다. 버섯을 선택하는 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맛과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권은 동양권보다 흰색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고, 버섯 품질 관리 기준을 보완해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버섯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산 버섯 구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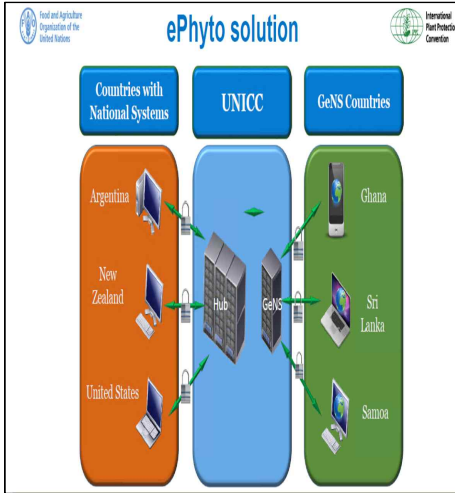


□ 국가별 버섯 선호도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식물검역 이슈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ePhyto) 상용화 개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미국에 이어 올해 2월 7일부터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ePhyto')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Phyto는 기존 종이증명서 대신 양국의 전자식물검역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교환함으로써 위변조 방지 및 통관 지연 해소, 탄소 배출 감소 등 코로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디지털 무역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이 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미국, 뉴질랜드와 ePhyto 상용화를 하였고, 앞으로도 국가별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을 고려하여 ePhyto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영상교육」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월16일 수출 담당 식물검역관을 대상으로 최신 검역 동향과 새로운 검역 요건을 중심으로 「'22년도 원활한 수출 검역 추진을 위한 수출 검역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영상)으로 실시하였고, 일선 검역관들이 수출 농가 교육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출단지가 차질없이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검역관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여 해소함으로써 올해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출검역지원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